

# 농산물 제값받기 실현 성큼

## 임실군 유통·가공시스템 탈바꿈... 농가소득 향상 정책에 행정력 집중

임실군이 지역농산물 제값받기 실현을 위해 올해 유통과 가공체계를 혁신적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군은 유통과 가공시스템을 바꿔 농산물 제값받기 운동에 앞장서는 한편 가격 안정성을 확보, 실질적인 농가소득 향상을 주도해 나가는 농업정책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군은 올해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원예산업발전 통합마케팅 활성화(4억원)와 국도비 지원사업비(5억원) 등에 총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임실군조합공동체인 산지유통센터를 지역을 대표하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다.

또한 임실고추의 명성을 살리기 위해 임실군 출자기관인 ㈜임실고추엔 농산물가공판매 회사의 고추가공센터 고춧가루 분쇄라인 증설 등에 5억원을 투자, 노후시설 개보수 및 관측홍보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관내 농식품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식품기업 육성지원사업에도 발 벗고 나간다. 총 4억원을 투자해 HACCP사후관리 컨설팅과 풀뿌리 기업 육성, 농식품기업 맞춤형지원, 전통식품 체험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작목반과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측과 홍보지원사업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포장재 지원사업에 19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2억원을 들여 택배비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아울러 지역농산물 마케팅 강화사업



임실군이 지역농산물 제값받기 실현을 위해 올해 유통과 가공체계를 혁신적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 일환으로 관측활성화 및 직거래행사, 관측홍보사업에 3억원을 투자한다.

이들 사업이 완료되면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농업인과 유통, 가공분야의 전문화된 네트워크가 구축돼 임실군 대표 농특산물의 가격경쟁력을 확보, 농산물 제값받기 실현에 한발짝 다가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기 위해 도내 최초로 시행한 농업인 월급제 사업과 농축산물생산안정자금 차액지원사업, 건조비 지원사업, 홍고추수매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농업인 월급제의 경우 농협이 자체 수매 계약체결 농가를 대상으로 계약량의 50%에 대하여 5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고, 행정비 2억8000만원을 이자보전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번기에 부족한 영농자금을 확보 농가의 경영부담을 크게 덜어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농가소득 증대사업을 크게 확대함에 따라 주 소득 작목에 대한 계약 이행률 제고와 함께 재배면적과 출하량도 조절될 수 있어서 가격안정과 유통체계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지역 농특산물이 농민들이 흘린 땀만큼 제 가치를 인정받고,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 아니겠느냐"며 이를 위해 지역의 농특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소비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략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상반기 신속집행으로 경제 심폐소생

## 순창군 1330억원 규모 추진 SOC·일자리 창출 등 중점

순창군이 상반기 1,330억 규모의 지방재정을 신속히 집행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본격 나섰다.

군이 신속집행 대상 예산액 총 39개 통계목 2,300억원 중 58%에 해당하는 1,330억원을 6월 말까지 집행하기로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이 목표한 58%는 정부 목표인 55.5%를 2.5% 상회하는 수치다.

이를 위해 군은 우선 2018년도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수립해 각 부서로 전달한 상태다. 또 부서별 목표액 달성을 위해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하고 부군수 주재 보고회를 개최해 각 사업별로 주 단위, 월 단위 점검 등을 통하여 목표를 달성 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파급효과가 큰 5억원이상 중점

관리사업 106건 1,853억원에 대해서는 오는 3월말까지 발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중 SOC 및 일자리 창출에 파급효과가 큰 재해위험지구 및 재해대책 정비 100억원, 도로관리 87억원, 하천 정비 157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36억원, 뷰라인 연결 및 수체함센터 건립, 강천산 아간명소화 등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에 180억원, 다용도보조경기장 조성 등 체육진흥시설 지원 50억원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집중관리를 통해 상반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군 양동업 기획실장은 "대내외적으로 경기가 회복 추세이나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며 "특히 순창군의 경우 군의 재정집행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만큼 군민들이 체감하는 사업분야 부터 신속집행을 추진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 남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

남원시는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조적인 농업정책을 펼쳐 보다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지적측량을 신청할 때에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올해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준다고 밝혔다.

대상은 정부보조사업 중 농가용 저온 저장고 및 곡물건조기,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따라 실시하는 경계복원, 분할측량, 현황측량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도 본인 소유의 토지 측량 시 3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가능 대상은 상이등급 6급 이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1~3급)이다. 관련 문의·접수는 민원실과 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1588-7704) 또는 인터넷(baro.bx.or.kr)으로도 가능하다. /남원=유영철 기자

# 순창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접수

순창군에서는 2019년도에 지원할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오는 2월 23일까지 신청받기로하고 읍면사무소와 농림사업 담당 부서에서 사업 신청 상담 창구를 개설하는 등 대대적 홍보에 나섰다.

이번 신청 대상 사업은 농촌, 농업, 식량, 축산, 식품, 유통유통, 산림 7개 분야 125개 사업으로 신청 대상은 농업인, 생산자 단체, 농업관련 종사자 등이다.

농림축산식품사업은 주관부서(농업기술센터, 산림공민과)와 읍면사무소 산업계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와 최근 3년간 경영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경영 장부, 경영 일지를 구비해 제출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내 가족 일처럼 책임진다” 우리마을 담당경찰관 제정비

## 남원경찰서 인월파출소 공감치안 강화

남원경찰서(서장 임상준) 인월파출소(소장 공덕식)는 2018년 상반기 인사발령을 맞아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공감치안 강화를 위하여 관내 26개 마을별로 우리마을 담당경찰관 제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마을 담당경찰관 제도는 경찰관이 담당 마을별로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담당경찰관의 소속과 사진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하고, 마을 이장들에게 담당경찰관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경찰관이 지역문제 해결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 주민친화적 치안 활동을 펼치고자 하는 제도로, 인월중군마을 이장 최용선에 따르면 우리마을 담당경찰관인 파출소 김경위가 수시로 마을회관에 찾아와 안부도 물어보고 도난예방 등 범죄예방 방법도 알려주고 해서 너무 든든하고 좋다고 말했다.

이에 공덕식 인월파출소장은 “우리



마을 담당경찰관 제도 시행에 따라 각 마을 담당경찰관 별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내 가족의 일처럼 도와주고 책임지고 살피는 경찰이 되어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시가 시내 버스정류장 2곳에 추위 대피시설 '온기 사랑방'을 설치한 가운데 시민들이 온기 사랑방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 한파 속 '온기 사랑방' 호응

## 남원시 버스승강장 2곳 추위대피시설 설치

남원시에 최저기온 영하10°C 이하의 맹추위가 연일 지속되는 등 한파가 기승을 부린 가운데 남원시내 버스정류장 2곳에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온기 사랑방' 추위대피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시선을 끌었다.

남원시는 연일 계속되는 맹추위로 부터 시민과 남원을 찾는 관광객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승하차 인원이 많은 공설시장 앞, 미동장(원협)앞 승강장 등에 '온기 사랑방' 추위대피시설을 설치했다.

또한, 시민과 지역을 찾는 관광객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버스승강장에 탄소 소재 열선이 설치된 온열의자를 설치하여 이용자

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남원시에서는 앞으로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승강장에 '온기 사랑방' 비탈막이 추위대피시설과 온열의자를 점차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남원시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 버스정보시스템(BIS)을 구축하여 시내관광객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승하차 인원이 많은 공설시장 앞, 미동장(원협)앞 승강장 등에 '온기 사랑방' 추위대피시설을 설치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눈이 내리는 겨울

순창의 겨울은 아름답습니다.

